차세대 양돈인의 독립·정착



김 곤 민 대표
G-Farm

양돈 문외한에서 두 번째 양돈장 운영까지

이 글을 쓰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인간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양돈 산업에 들어와 지금까지 겪은 어려웠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유쾌한 일 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서 보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조금 알고 나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작하고 나니 돌아갈 길이 없었고, 만들고 나니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갈 것 같다' 는 생각이 든다.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 전진했다' 라고 나를 포장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은 못 된다는 걸 알기에 이 글을 최대한 솔직하게 써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이기에 모든 '사양가'가 나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기를 바란다.

1부. 농장 임대부터 G farm 안정화까지

1999년 1월 군 제대와 동시에 아버님의(경북 경주시 소재) 농장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곳에 간 동기는 간단하다. 별다른 재주가 없었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아니었고, 직장에 취직할만한 가능성도 희박했기 때문이다.

72-88 김곤민.indd 72 2016-10-14 오후 4:28:24

당시 아버님께서는 트럭에 소금을 싣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판매하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번 돈으로 시장에서 새끼돼지를 몇 마리 구입하셔서 농장을 만드셨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잡종 돼지를 자연 종부하고, 주워 온 파이프로 이리저리 용접해서 만든 임신 스톨, 분만틀, 보온덮개로 단열한 벽채, 옛날 집을 개조해 만든 무허가 축사 등.

모돈 40두로 양돈을 처음 시작

그래도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몰랐으니깐.

모돈 40마리 규모에 일괄농장을 밀사 시켜 어머니와 둘이서 꾸려갔고 아버님은 여전히 소금을 판매하시면서 하루 번 돈으로 사료를 구입해 오셨다.

지금 생각하면 못할 짓을 많이 했다.



▲ 나의 첫 농장

자체적으로 올린 후보돈의 적정 종부일령을 몰라서 200일도 안돼 종부했고, 당연히 분만하면 골반에 걸려 손을 넣어 일일이 꺼냈다. 그러니 생산성은 늘 바닥이었다.

저세 일령을 몰라서 이유하고 한참을 지나 아버지, 어머니, 나 세 명이 하루 종일 거세하기도 했다. 또 방법을 몰라서 스톨에서 뒤로 돼지를 꺼내면서 엄청 때렸던 기억도 난다.

참 몰랐다. 부끄럽지만 정말 몰랐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료값 받으러 오는 사료회사 직원과 환경과 직원이 찾아오는 날이었다.

늘 농장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도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본적은 없었다.

우리 집은 항상 어렵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늘 갖고 있었다.

내 유일한 수입은 퇴비를 손으로 말려서 1년에 한번 팔아 번 것이 전부였지만, 그때는 그것만

72-88 강군만.indd 73 2016-10-14 오후 4:28:24

으로 좋았다.

그렇게 7년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다. 그래도 막연한 꿈은 있었다.

'이 일을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멋있게 해보면 어떨까? 왜 꼭 이렇게 해야 할까?'

매일 근거도 없고, 구체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가졌다.

경주 2세 양돈인 모임 통해 새롭게 눈떠

그러던 중 같은 지역에서 농장을 하는 2세 모임에 가게 되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샌드위치 판넬 같은 곳에서 돼지를 키우고, 슬러리를 이야기하고, 종돈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다.

너무 이상해서 그들의 농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경주 2세 양돈 모임

처음 방문한 농장이 당시 모돈 100두 농장 이었는데 나는 말로만 듣던 '10,000두' 농장인 줄 알았다.

그 다음 방문한 농장은 더 컸다.

'이런 방식과 시설에서 농장을 하면 나도 진짜 잘 할 수 있겠다' 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독립을 준비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이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축협에 가면 돈을 빌려 준다고 했다.

왠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명함을 한 장 만들어 찾아갔다.

대출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내가 왜 빌려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지금 그 담당자를 만나면 그때 상황을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놈이 찾아와서 무작정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어이없었다고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내 앞으로는 실적이 없어서 아버지 앞으로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름을 빌릴 엄두도 못 냈다.

무허가 축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많은 거절을 당하셔서 당신께서 겪었던 실망을 저에게 주지 않으시려는 이유였다.

72-88 경관란.indd 74 2016-10-14 오후 4:28:24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당시 상황을 둘러대 겨우 빌릴 수 있었다.

가끔 농협 대부계 앞에서 담당 직원의 '안 된다' 는 말 한마디에 욱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절박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처음으로 만든 명함

나 역시 매번 거절당하지만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한 번도 실패 해본 적이 없다. 물론, 1~2년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아버지 농장 사료 여신을 정리하고 임대로 농장을 시작할 수 있었다.

농장을 시작할 때 가 계약금이 400만 원이었는데, 이 돈이 없어서 12시에 했던 약속을 오후 6시에 겨우 빌려서 계약했다.

원칙 세우고 철저하게 지켜

내 시작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짓은 다했다.

어쩔 수 없으니 미친 것 같아 보여도 행동으로 옮겼다.

결과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편이 늘어났다.

새벽부터 일하고 낮에는 농협으로 출근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배웠다. 그렇게 무보증인, 무담보로 정책자금 (3% 금리) 1억 6천7백만 원을 빌렸다.

그때부터 원칙이 생겼다. 지금도 변함없다.

첫째, 솔직해야 한다.

둘째, 미리 찾아가야 한다.

셋째, 상대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넷째, 대안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진심으로 절박해야 한다.

나 역시도 처음에는 '척' 해야 하고 '누구' 를 안다고 해야 한다고 주워 들었다. 그때 그러지 않아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혼자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면서 버텼다.

진짜 떠올리기도 싫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72-88 권균현.indd 75 2016-10-14 오후 4:28:25

모돈 한 마리가 스톨에서 탈출해 분뇨 저장조에 빠져 그 녀석 건지러 갔다가 같이 죽을 뻔한 일, 관정이 막혀서 소방차 불러서 물 공급하던 일, 스크레퍼 용접하러 들어갔다 감전된 일 등.

그렇게 시간은 흘러 첫 출하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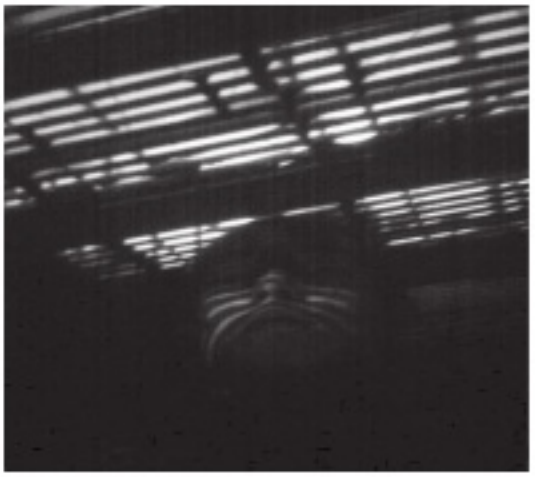
처음부터 원칙을 정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사료는 현금 거래하자고 생각했다.

첫 출하 대금으로 사료여신 '0' 을 만들고 그 사료영수증을 부적처럼 늘 지갑에 넣고 다닌다.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 가고 있다.



▲ 소방차 출동한 날



▲ 스크레퍼 용접하던 날



▲ 모돈 구하러 가던 날



▲ 첫 출하하던 날



▲ 첫 출하영수증

농장에서 나올 때 관계가 나빠져 그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했는데 첫 출하할 때 농장에 오셔서 돼지를 실어 주셨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아버님은 시간 되실 때면 들어오시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 보다 그냥 돌

72-88 광균만.indd 76 2016-10-14 오후 4:28:25

아 가셨다고 하셨다.

농장에 있을 때는 '「필댁펌프」 한 대만 있으면 삽으로 파지 않아도 되는데, 「다인돈방청소기」 한 대만 사면 해머로 일일이 깨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원망이 많았다.

그런데 농장의 대표가 된 지금에서야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출하 1년 만에 농장 매입해야 할 상황

그렇게 한 해를 보내자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농장주가 임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을 사지 않으면 팔겠다고 했다.

농장을 만드는데 1년, 첫 출하 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팔려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매일 농장주의 기분에 따라 가격이 변하니 참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협상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참 길고 지루한, 지금 생각하면 엉망진창인 협상이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원하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농장 최종 매입 금액 3억.

첫해 출하 영업이익 1억, 시설자금 대출 1억, 때마침 첫 시행되는 사료구매자금 8천만 원으로 조달을 계획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사료구매 자금을 대출하려니 '농신보' 한도가 안 나와서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 '포항농협신용보증센터' 를 찾아갔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담당자를 농장으로 모시고 오면서 그동안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왜 이 대출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 축협에서 사료구매 자금 조기 상환 후 인증샷

그분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인연이란 참 묘하다. 어려울 때 가장 소중한 인연들을 만난다. 어려울 때 비로소 내가 가장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72-88 강군만.indd 77 2016-10-14 오후 4:28:25

베트남인 2명 직원으로 채용

그렇게 농장을 만들고 직원도 채용했다.

베트남에서 온 '디엔' 이라는 친구다. 혼자서 매일 일하다 새로운 직원이 오니 너무 신기했다. 나는 이 친구가 궁금했고 이 친구 또한 나를 너무 궁금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청할 수 있었다

나는 농장에 관한 전반을 가르쳤고, 디엔은 업무에 대한 센스, 인성, 책임감이 처음부터 좋았다. 당시 여자 친구인 '벳씨' 와 함께 근무하기를 원해서 그 친구도 농장에 합류했다.

작은 규모(모돈 100두)에 직원을 2명이나 채용한다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 결과 놀라운 성적을 매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8년을 함께 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고 결혼식 준비를 함께 했고 출산 준비를 도왔다.

그렇게 농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2008년 농장 HACCP를 인증받고, 2009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서 안정된 출하처를 확보



▲ 디엔, 벳씨와 함께

72-88 강공원.indd 78 2016-10-14 오후 4:28:25

할 수 있었다.

폐업을 하긴 했지만 'Gfarmstory' 라는 식당 운영을 경험하기도 했다.

식당을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업' 에 본질이다. 모든 '업' 에는 나름의 본질이 있다. 농장은 제조업에 가깝다면 식당은 서비스업인데 식당 위치, 서비스, 맛, 등의 필요충분조건을 너무 등한시 한 것 같다.



▲짐시 경험했던 Gfarm story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과정까지 공부 중

또,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했다.

농장 시작하던 첫해 '후계농업자금' 을 신청했는데 관련 학과 졸업한 친구보다 적은 금액을 배정받은 적이 있었다. 지금이야 이해가 가지만 당시에는 한 푼이 아쉬울 때라 오기가 생겨 '방송통신대학교' 에 들어갔다. 8학기를 6년 만에 겨우 졸업했다.



▲대학원 졸업식

시작은 다소 불순한 의도였지만 마치고 나니 무언가 허전함이 남아 대학원에 진학했다. 원하던 학과를 찾다 보니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어 덕분에 매주 녹록지 않은 등·하교를 경험하게 되었다.

공부를 마무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다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학우들을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러던 중 홍성에 놀러 갔다가 자기 농장을 하고 싶어서 박봉을 받으면서 열심히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이해할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쉽게 농장을 시작할 수 있었던 내 입장과 상반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기 농장을 시작하지 못하고 포기하

72-88 강군만.indd 79 2016-10-14 오후 4:28:25



▲농장에 근무 했던 수의사 친구들

는 것을 보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지긋지긋한 농장의 어려움을 경험해 왔던 나로서는 농장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게 놀라워 복잡한 심경을 헤아릴 수 없었다. 언젠가 다시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농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5년을 준비해 두 번째 농장을 만들었다.

2부. 두 번 째 도전, 'GfarmCS'

두 번째 양돈장 인수에 도전

2대째 대를 이어가던 농장이었는데 부도가 나 도시에 사는 분이 부동산에 가치를 보고 인수를 했다. 그 가치를 올리기 전까지 임차로 운영하시기를 원해 장기 임차로 농장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농장의 예전 이름은 '창성농장' 이었다.

창성농장은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기억하고 싶어서 '창성' 의 이니셜을 따 농장의 이름은 'GfarmCS' 라고 지었다





▲경북 영천 창성농장(사진 좌, 우)

72-88 강균현.indd 80 2016-10-14 오후 4:28:26

그 농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엄청난 폐사율, 민원, 높은 여신 등 이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지역 담당 공무원이 축산업 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되어 '대한양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문제가 됐던 행정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농장에도 원칙을 적용해

지나고 나서야 알았지만 워낙 문제가 많이 되었던 농장이라 담당 공무원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결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어 농장을 다 조성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농장을 다 비운 상황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했다.

원칙을 세웠는데,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새로 유행하는 시설은 하지 않는다.

자금에 대한 문제로 이런 원칙을 세운 것도 있지만 농장은 실험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단순하고 이미 검증이 끝난 (3년 전부터 이미 보편화된) 그런 제품에만 비용을 지출했다. 자금은 한정적이라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절약할지 최대한 고민했다.



▲창성농장 내부

종부 전까지 1명의 교육시킨 외국인 직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시설 인력은 그동안 손발을 맞춰 왔던 외부팀에 맡겼다.

시설 및 운영에서 주안점을 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분만사의 분만틀 바닥이 시멘트여서 경험상 문제가 될 것 같아 전부 철거하고 고상식 플라스틱 패드로 교체했다.

폐사가 끊이지 않았던 자돈, 육성, 비육사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개방된 스크래퍼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생각되어 앞뒤로 전실을 만들어 차단했다.

신규로 조성하면서 'PRRS백신을 접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었다.

72-88 강군만.indd 81 2016-10-14 오후 4:28:26

결론은 놓기로 했다. 농장 주변으로 농장이 있고 각종 출입 차량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예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입구에 샤워 실을 만들어 누구든 샤워 후 어떤 차량이든 소독 후 출입을 원칙으로 정했다.



▲리모델링 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면접 후

이 농장을 조성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인력이었다.

처음 계획대로 내국인으로 구성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젊은 친구들을 찾아 다녔다.

현재 우리 상황으로는 대학생은 힘들 것 같아 농업계 고등학교를 찾아 다녔다.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1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2명을 데려왔다. 출하 때 까지 잘 고용했지만 결국 다 퇴사를 해 버렸다.

매월 워크숍 열고 농장 개선 방안 토의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준비되지 못 했던 것 같다. 또한 그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준비가 되면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농장의 책임자는 기업농장에서 현장 경험을 했던 분을 모셔왔다. 많은 농장장을 면접했지만 대부분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기본기를 지키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채용했던 몇몇 직원들의 이탈로 직원 구하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

담당 수의사 공호철 원장과 시설부터 직원 교육까지 처음부터 함께 했다.

매주 농장의 생산 자료를 수치화 해 직원들이 직접 기록하고 매월 농장 원가를 공유했다.

72-88 강군만.indd 82 2016-10-14 오후 4:28:26

또 분기마다 워크숍을 열어 농장의 현재 상황과 개선 사항을 토의했고 방향성을 논의했다

경주농장의 직원들 퇴사를 계기로 내국인 채용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외국인 직원 채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태국과 네팔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 7명의 직원으로 안정화시켰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서 급여 기준을 체계화하고 복지환경을 변화 시키고 있다.

직원들이 당장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은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 중이다.

부족한 여건에서도 직원들이 무척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긴 시간을 거쳐 우리의 두 번째 농장 'GfarmCS' 가 출하를 시작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었다.

이제부터 이 두 농장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개선하며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이 지금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상민 과장님 합류


▲Gfarm& GfarmCS 첫 번째 워크샵



▲GfarmCS 현판식

'농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

새로운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 처음' 을 생각해 보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30대까지 별 꿈이 없었다. 그러던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농장, 매일 망할 것 같아 할 수 있는 짓은 다 한 결과 겨우 작은 농장 하나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취감이라는 것을 맛 보았다.

내가 농장을 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농장' 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노력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존감' 이다. 이 '자존감' 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 시키는 힘이 되어 준다.

72-88 강금민.indd 83 2016-10-14 오후 4:28:26

시간이 흘러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 번 힘든 농장을 개선하고 그로 인해 '농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Gfarm' 스러운 독특한 스타일의 '대체 불가능한 Gfarm' 을 만들고 싶다.

양돈을 처음 시작했던 시기에 양돈농장의 성공은 '10,000두' 라고 배웠다.

시간이 흐른 뒤 'MSY 24두'가 꿈의 숫자라 배웠고, 그 이후에는 '적벽돌에 all 스테인리스스틸'로 무장한 그림 같은 농장이라 배웠다.

모두가 '10,000두, MSY 30, All 스테인리스스틸에 적벽돌 농장' 을 만든다면 산업이 참 재미없어 질 것 같다.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양돈업을 한 시간 보다 해야 할 시간들이 더 길기에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싶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다.'

누가 봐도 'Gfarm스럽게'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https://www.facebook.com/GFarmstory

72-88 강군장.indd 84 2016-10-14 오후 4:28:26